



제 395 호 2015년 5월 6일 발행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 031-481-2042 FAX : 031-481-3224 E-mail : bravo@iansan.net

브라보 안산

Ansan city Newspaper
Bravo Ansan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blog.naver.com/cityansan twitter.com/ansancityhall facebook.com/ansancity3 story.kakao.com/ch/ansancity

02면	특집 / 가정의 달	04면	생태·관광	06면	문화·예술	08면	숲의 도시, 안산
따뜻한 가정을 꿈꾸는 모든 이에게 전하는 메시지		대부바다향기 꽃 축제 성황리 개최		사람중심 이야기 마당 10번째 ‘사회적 경제의 착한 이야기’		안산의 깊은 역사를 간직한 곳 ‘수암봉’ 이야기	



가정의 달 5월, 모처럼 휴일을 맞이한 가족들이 국제거리극 축제를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

가정의 달, 5월이다. 어린이 날을 비롯해 아버지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온 가족이 5월에 담겼다. 세월은 어린이를 성인으로, 부부와 어버이로 바뀌놓는다.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나홀로족'이 늘어나며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 이에 브라보안산은 가족 해체의 위기가 사회현상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떠오르는 현실 속에서도 그 위기를 잘 이겨낸 가족, 사랑으로 이룬 새로운 형태의 가족, 제자와 스승이 나누는 고민을 게재하며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 연한 녹색이 번져가듯 그동안 찾아뵙지 못한 가족과 스승을 찾으며 따스한 5월을 맞아보자.

따뜻한 가정을 꿈꾸는 모든 이에게 전하는 메시지

온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은 아침을 먹는 시간이다. 23살 딸과 고3인 아들 그리고 배재걸·이경숙 부부 이렇게 넷이서 아침 식사를 한다. 늘 친구 같고 장난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이 결코 싫지만은 않은 이경숙 씨. 함께 웃고 즐겁지만 한 이 가족에게도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 그 과정들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경숙 씨는 이기심이 가정불화의 가장 큰 문제이라고 말한다. 내 탓이 아니라 모두 상대방의 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경숙 씨는 고난 가운데 본인을 들여다볼 기회를 가졌다고 한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는 동안 남편과 싸워보기도 하고 남편을 바꿔보려고도 해봤다. 자라는 환경이 다르기에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자 대처하는 방법도 다르고 서로의 가치관이나 성격이 다르기에 견디기 힘들었다. 그런 가운데 이경숙 씨는 신앙을 붙들기 시작했다. 결혼하고 맞벌이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고난을 통해 신앙을 더욱 붙들게 되었다고 한다. 마음 터놓고 의지할 곳이 없었던 터라 신앙만이 유일한 안식처였다고 말한다.

남편의 사업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되었다. 꽤 크게 하던 사업은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접게 된다. 배재걸 씨는 사업 욕심에 이일 저일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럴 때마다 실패로 돌아가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그러면서도 가정을 돌보기 보다는 사회활동에만 전념하며 부부간에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경숙 씨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극복하려고 애썼다. 사람에게 풀 수 없는 마음을 기도로 풀었다. 월세도 못내는 상황이었지만 밖으로만 돌던 남편이 야속했을 법한데 지금까지 견디어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 자라면서 우리집은 왜 힘들어야 하나고 묻던 아이들이 모두 올바르게 성장했다.

배재걸·이경숙 부부는 한동안 헤어져 살기도 했다.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6~7개월을 떨어져 살다 어떤 일을 계기로 가족이 함께 살게 되었다. 우연한 기회에 가족사진 콘테스트 1등에 선정돼 가족이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제주도 여행은 이 가정에 행복의 씨앗이었다. 힘들어 하던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게 되고 이해하기 시작했다. 행복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경숙 씨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행복이라는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한다. 자기만의 틀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맞추어 놓고 맞벌이를 했지만, 그 틀에 부합되지 않자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고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는 데 많은 시간이 흘렀다. 배재걸씨 또한 모든 일의 실패와 어려움이 욕심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게 되면서 가정의 평안이 찾아왔다.

부부는 노적봉에서 열리는 생활체조를 일주일에 두 번 같이 다니고 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는 인내만이 행복을 여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부부는 입모아 귀뜸한다.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대화하는 시간도 많이 가지길 또한 당부했다.

건강하게 잘 자라준 자녀들.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출근한다. 아들은 고3이다.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고 두 자녀 모두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만큼 철이 일찍 들었다. 이 자녀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것은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평범을 거부하며 욕심을 부렸

던 무모한 도전들. 배재걸 씨는 이제 그 욕심을 버리고 주어진 일에 만족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히 보내고 있다고 한다. 매일 출근할 직장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 행복하다는 배재걸 씨 가정에 웃음꽃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본다.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아이를 키우는데 사랑하나면 충분합니다”



사진제공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가족의 돌봄 못 받는 아동에게 희망의 손길 '가정위탁'

부모의 부재는 아이들에게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크나큰 상실감을 안겨준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따뜻한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일반가정에서 일정기간 양육하는 '가정위탁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김 모 씨는 2009년부터 한 아이를 돌보고 있다. 가족들

면서 웃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쁘다."라며 "친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는 아이들이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누군가 자신을 챙겨주고 의지할 곳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것 같다."며 "아이가 건강하게 커가는 모습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한다.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가정 내 여러 가지 사정

이 위낙 아이들을 좋아해 '언젠가 입양을 하고 싶다'라고 막연히 생각하던 차에 딸아이가 가정위탁제도에 대해 알려주면서 가족회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었다. 돌이 막 지난 아이가 집에 오면서 가족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남편은 아이를 보려고 일찍 퇴근해 조금이라도 더 놀아주려고 하고 아이들도 막냇동생이라며 살뜰히 챙겨주는 등 집안 분위기가 이전보다 훨씬 생기가 넘치고 화목해졌다.

김 모 씨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이의 재물을 보면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린다. 아이를 키우

으로 버림받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친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는 아이들을 일반 가정에서 일정기간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아이들이 양육시설에서 느끼는 상실감을 조금 이나마 상쇄해 준다. 경기 남부지역 21개 시·군 전체 위탁가정에 양육되고 있는 아동은 현재 1,522명으로 이중 조부모나 친인척이 키우는 가정을 제외한 일반위탁가정은 599정에 65명의 아이들이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다. 센터에서는 친부모가 빠른 시일 내에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해 회복을 돕고 있다.

위탁부모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가족 구성원 모두의 동의 후 관할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센터에서 실시하는 4시간의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위탁가정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소득이 있어야 하고, 위탁 아동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 또한 위탁부모의 나이가 모두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가 없거나 미성년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해 4명 이내여야 한다.

이외에도 가정 내 성범죄, 가정폭력, 학대 및 정신질환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문의 :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 031-234-3979)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선생님의 진심어린 애정이 느껴져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매일 만나는 선생님께 이렇게 편지를 쓰려니 조금 쑥스럽네요.

2학년이 되어 선생님께서 교실로 들어왔을 때 저는 걱정스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반에는 친한 친구들도 없고, 제가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앞으로의 학교생활이 힘들 거라고 느껴졌거든요.

처음 한 달 동안 우리 반 분위기는 조용했었는데, 선생님께서 애들끼리 친해지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해주신 덕분에 지금은 많이 활발해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구요.

선생님께서 다른 반보다 더 일찍 우리 반이 단합할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생일 맞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챙겨주셔서 참 좋았어요.

얼마 전, 책상에 붙어 있는 쪽지를 발견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쪽지에는 “재경아! 힘내. 언니도 중2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파이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언니가 교실에 다녀간 줄 알고 있었는데, 학급편지 속에 선생님께서 가족에게 쪽지를 보내라는 미션을 주고 우리를 격려해주신 이벤트라는 걸 알았을 때는 완전 감동이었습니

다. 선생님! 저는 요즘 ‘중2병’이 왔나 봐요. “나라를 지키는 우리 재경”이라는 엄마의 농담에도 화가 나고, 별일 아닌 것에도 예민해져요. 학교 운동장에서 신나게 농구를 하다가도 예쁘게 핀 벚꽃을 바라보면서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생각나 급 우울해지기도 해요. 그 시는 ‘괜찮다, 다 괜찮다’는 의미인데 저에게는 ‘흔들린다’는 단어만 꽃혀서 슬퍼져요.

선생님! 저는 요즘 ‘중2병’이 왔나 봐요. “나라를 지키는 우리 재경”이라는 엄마의 농담에도 화가 나고, 별일 아닌 것에도 예민해져요. 학교 운동장에서 신나게 농구를 하다가도 예쁘게 핀 벚꽃을 바라보면서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생각나 급 우울해지기도 해요. 그 시는 ‘괜찮다, 다 괜찮다’는 의미인데 저에게는 ‘흔들린다’는 단어만 꽃혀서 슬퍼져요.

저는 아직도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은 저에게 재능이 많다고 하시지만 전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서 고민이거든요.

가끔은 선생님의 애정이 엄마의 잔소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 선생님과의 개별상담을 하면서 제 성적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해주셔서 정말 고맙웠어요. 우리 반 36명을 늘 걱정하시는 마음이 전해졌어요. 선생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반에 대한 애정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저희는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 마음을 터놓을 친한 친구도 생기고, 서로 웃고 떠들며 잘 지내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선생님, 열심히 저희를 가르쳐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의 기대에 잘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이재경 (양지중2) 올림



재경이에게

재경이 편지를 받는 순간, 선생님 마음이 벚꽃이 살랑대는 봄날처럼 설레는구나.

카톡이나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 편해진 시대에 편지나 쪽지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스승의 날을 앞두고 편지를 받고 보니 기분이 무척 좋아지네.

올해 너희를 맡으면서 꼭 실천하고 싶은 게 있었단다. 편지와 쪽지쓰기를 하면서 사랑과 행복을 느꼈으면 했어.

그 첫 번째 미션인 가족과의 쪽지로 인해 재경이가 감동을 받았단다 선생님도 무척 기뻐.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고3때보다도 중학교 시절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일까. 집보다는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은 너희들에게 학교가 ‘가고 싶은 곳’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야. 항상 우리 반을 생각하며 친구들 관계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단다.

요즘에 부쩍 거울 앞에 많이 서 있는 우리 반 여학생이나 우리 재경이 모습에서 어느덧 중2라는 사춘기와는 또 다른 심리 상태가 찾아왔다고 생각된다. 그런 너희들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싶어. 또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이 너무 길지 않도록, 험난하지 않도록 안내해주고 싶단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자신을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너희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들과의 관계와 선생님에 대한 영향도 매우 중요하단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재경이에게 희망과 용기를 많이 주고 싶구나.

재경아! 선생님은 너희가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단다. 재경이는 피부가 좋아서 맨 얼굴이 더 예쁜 것 같아. 대학생 언니처럼 예쁘게 꾸미고 싶은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안타까운 마음에 “화장 안 해도 예뻐.”라고 자꾸만 얘기하게 되는구나. 선생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 알아주길 바라.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잔소리로 들리기도 할 거야. 너희 때에는 선생님들이 훈계를 하더라도 마음이 동화되지 않으면 귀를 막은 것처럼 들리지 않고 마음에 와 닿지 않을 거야. 항상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 재경이는

꿈이 작가이니 여러 가지 경험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거야.

우리의 만남이 어느새 두 달이 지나가는구나. 압전하던 우리 반이 이제는 밝고 명랑해서 시끌벅적해졌지만 자기 속 마음을 감추기보다 표현할 줄 알아서 좋고, 선생님 마음을 이해할 때 그것만으로도 기쁘다. 너희들 모두가 아무 탈 없이 중2를 무사히 지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 항상 너희 편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할게. 우리 반에는 중2병이 없도록 다 같이 열심히 해보자.

선생님보다는 너희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사랑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소외되는 친구들 없이 서로 격려해주기 바란다. 지난번 음악 수행평가 때 용기 있게 가창을 불러준 태형이한테 모두가 박수를 쳐 준 것처럼 서로가 칭찬하며 함께하는 우리 반이 되었으면 해.

우리 재경이도 더욱 열심히 할 거라 믿고, 예쁜 마음이 담긴 편지 정말 고마워. 벚꽃이 지고 나무에 연둣빛 순이 오르는 오월에 재경이의 편지는 비타민이었어.

우리, 앞으로도 잘 해보자.

담임 박희정 (양지중 교사)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선부1동 성동연립 한 구석에 있는 작은 공간, 달퐁놀이터가 유난히 시끌벅적하다. 놀이터 옆 테크에서 어른들이 밧줄을 크게 돌려주면, 아이들은 팔짝팔짝 뛰면서 숫자를 세며 줄을 넘는다. 한 명씩 줄 안으로 들어와 여러 명이 줄넘기를 넘는데 성공하자 함성이 크게 울리고, 어른들도 덩달아 흥분한다.

그동안 달퐁놀이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선

부어울림지역아동센터장 이광심 씨는 “전래놀이를 배우며 놀이가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밥이자 약이라는 것을 새삼 더 깊이 느꼈다.”며, “아이들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 과정에 참여해서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많은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놀이터 담벼락에서 한 스텝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시작하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더니 어느새 자기

들끼리 놀이를 하기 시작했다. 놀이터 한쪽 편에서는 요즘 거의 볼 수 없는 고무줄놀이를 하고 있었다. 어른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먼저 고무줄 시범을 보이면, 어느새 여자아이들이 한두 명씩 뒤에 붙어서 발 모양을 따라한다. 처음에는 생소해서 쭈뼛거리던 아이들도 재미가 붙었는지 제법 품이 난다. 아이들도 신났지만, 오랜만에 ‘장난감 기차’ 노래에 고무줄놀이 한 판을 뒀 어른들도 덩달아 신났다. 아이들과 고무줄놀이를 함께하던 조은지역아동센터장 김현숙 씨는 “몸을 많이 쓰면서 놀다보니 아이들 에너지가 발산되어 너무 좋다.”며 “평소 자주 빠치거나 짜증이 있던 아이들도 놀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승부근성으로 발산되니, 정신건강에 이보다 좋을 수 없다.”고 말한다.

놀이터 옆 테크 벤치에 앉아계시던 노인분들도 단체줄넘기 하는 아이들을 보며 “아이구! 잘한다.”소리를 연발한다. 광명소 할머니는 “요즘 놀이터에서 애들 보기 힘든데, 이렇게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 사는 거 같다.”며 “오늘은 진짜 놀이터 같다.”고 웃으신다. 단체줄넘기가 끝난 후에는 신문지와 전단지 종이를 이용해 딱지 만들기를 했다. 다양한 크기 딱지를 손에 두툼하게 쥐 아이는 부자가 된 것처럼 신나서, 딱지치기 놀이를 주도했다. 이날 아이들과 함께 모래밭을 뛰어다니던 선부지역아동센터장 백기자 씨는 “전래놀이를 하다보니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아이들하고 더 활동적으로 놀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동네놀이터마다 이런 프로그램이 전파되면 좋겠다.”고 말한다.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 (econojin@naver.com)



대부바다향기 꽃 축제 성황리 개최

형형색색 꽃들 넘실대는 향기로 관광객들 유혹

안산시시는 4월 23일~26일까지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서 ‘대부바다향기 꽃 축제’를 열었다.

대부 바다향기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안산시가 세계 최대 규모의 시화호 조력발전소와 바다향기 수목원, 대부 해솔길 등 여러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수도권 최대의 그린테마 체험관광도시를 만든다는 목적을 두고 만들어진 것이다.

‘대부 바다향기 테마파크’는 시화호 남측 간석지인 대송단지 내에 있으며 여의도 면적의 약4배의 크기로 수도권 최대 규모의 관광 및 휴식공간이 되고 있다.

대부도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광인프라 구축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이 축제는 주차장을 지나 테마파크 입구에 들어서면 ‘당신의 뱃살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조금 생뚱맞은 문구가 관광객을 반긴다.

청춘불패 동산에 들어서자 넓게 펼쳐진 44만 송이 튤립들이 서로 자기색의 아름다움을 뽐낸다. 원산지가 터키인 튤립은 16세기 후반에 유럽으로 퍼지게 되는데 귀족들만의 전유물로 옮겨지면서 투기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고 한다. 꽃말을 보면 빨간색은 사랑의 고백, 노란색은 헛된 사랑, 보라색은 영원한 사랑, 하얀색은 실연, 등 모두가 사랑과 연관된 꽃말들이다.

여의도 면적의 약4배의 크기, 수도권 최대 규모의 관광 및 휴식공간

수변공원의 특성을 말해주듯 동산을 지나 풍차동산을 가는 길은 양 옆으로 갈대습지가 멋들어지게 널려있다. 곳곳에 포토존을 마련해 자연을 해치지 않고 아름다운 사진을 담아갈 수 있도록 해 놓았고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산책로 주변에 의자와 안내판, 편의시설도 설치해 놓았다. 그리고 느티나무 아래 그늘을 마련,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덩굴식물을 이용해 작은 터널을 만들어 재미를 더해 주었다.

또다시 넓게 펼쳐진 꽃들 사이를 걷다보면 서로 다른 크기와 모양을 하고 있는 풍차들이 반겨준다.

제각각의 풍차들은 이국적 냄새보다는 꽃들과 하나여야만 하는 이유를 말하듯이 자연스레 어울리면서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며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놓는다.

무지개빛 꽃들의 향연을 맘껏 즐겼다 싶을 때쯤엔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장 안으로 들어서게 된다. 가운데에는 아이들의 비눗방울 놀이가 한창이고 한쪽에는 뽀리 댄



스, 난타, 지역동아리 등 테마공연이 펼쳐질 무대와 페이스페인팅, 목공체험, 튤립 꽃 만들기 등 체험행사, 먹거리 장터 등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된다. 또한 다문화체험 의상, 놀이를 통해 의상을 직접 입어보고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놓았다. 아이들은 달콤한 솜사탕과 추억의 뽑기를 해볼 수 있어 즐거움을 더한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 속에서 여유롭고 즐거움을 함께 만끽한다.

대부도 주민 한 분은“대부 바다향기 테마파크를 시작으로 수도권 주변의 많은 관광객들이 안산을 찾아주어 침체된 지역경제도 되살리고 안산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대부도가 바다향기 꽃 축제를 통해 명품 관광도시로 다시 한 번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층 품격 있는 꽃 축제를 시작으로 봄의 기운을 받았으니 관광산업과 더불어 더욱 잘 사는 안산이 되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라본다.

김선 명예기자 <itsumo9011@naver.com>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신나는 과학으로 미래를 경험하는 ‘경기안산과학축전’ 열려

이동과학교실, 천체망원경등 다양한 체험 전시 운영



경기도와 안산시가 주최하고 (재)경기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2015 경기안산과학축전’이 오는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와 안산사이언스밸리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2015경기안산과학축전에서는 ‘과학이 전하는 상상 그 이상의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창의적인 작품 전시와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안산사이언스밸리 내 8개 연구기관(경기테크노파크, 한양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농어촌연구원)와 경기도 내 과학관·단체가 함께 참여해 150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과학의 우수성을 알린다.

전국 지능형 로봇대회와 경진대회를 열고, 상상창의 체험관, 과학기술체험관, 자연환경체험관으로 이루어지는 체험관을 운영한다. 인포테인먼트(정보와 오락의 합성어) 공간에서는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과학기술콘서트, ASV 연구 현장투어, 주니어 과학기술교실, 과학명사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주요 전시·체험프로그램으로 이동과학교실, 천체망원경을 이용한 태양 관측, DNA이중나선구조의 이해, 항공우

주과학교실, 이동식 천체투영관, 이동 과학차, 나노기술이 열어가게 세상, 뇌모자 만들기, 약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뱀 로봇 만들기, 재활용으로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태양발전기와 자가발전 자전거로 에너지 만들기, 테니스 흥의 특별강연, 나인봇&드론 체험전, 말하는 감성대화인형, 하이브리드 워치, 플레네이저 체험한마당, 테셀레이션 체험놀이, 부천로보파크 노이드 댄스공연, 도전! 유전자 코드를 찾아라, 2015년 학생발명아이디어 수상작, ICT기반 농업재해평가 기술 체험, STEAM무선전력전송교실, 독도 3D 입체영상관, 스마트해양과학실험실, DNA 추출, 터치스크린 체험 자동차 제작과정 등 시연 부스를 진행한다.

이번 축전은 최첨단 과학의 세계를 만끽하며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는 과학축전으로 과학 대중화 확산과 우수 과학인재 양성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문의 : 안산시 산업정책과 ☎ 031-481-2851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안산은 지금 풍미작렬(風味炸裂)

카페 같은 한식집 어울림 영양돌솥갈비탕



‘2014 전국 테마음식 경연대회’에서 은상을 받으며 ‘우수 맛집’으로 선정된 ‘어울림 영양돌솥갈비탕’을 찾았다.

밝고 아기자기한 카페 같은 인테리어, POP(손글씨)로 쓰인 메뉴판, 잔잔하게 흐르는 음악은 밥집이라기보다 카페에 들어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넓지 않은 식당의 한쪽 벽에는 2인용 테이블이 놓여 있다.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의 인테리어는 안주인 김영월 씨가 직접 소품을 구매 꾸몄다고 한다. 고만기 대표(51세)는 전라도 순천이 고향이다. 웨라톤 그랜드 워커히에서 교육을 받고 명월관에서 5년간 한식조리 주방장으로 일하면서 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왔다. 2000년에는 신안산대학교 호텔조리과에 입학, 2년 만에 졸업을 했으며, 재학 당시 국제 요리경연대회에 학교 대표로 출전해 개인부문 동메달을 받기도 했다.

이후 한정식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작년 6월에 자신의 집 근처에 작은 한정식집을 개업하게 되었다.

“한정식집이라기보다 미니 한정식으로 금액과 분위기 등 고객층을 일반 서민에게 맞췄습니다. 손님들이 대접받고 가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편안하고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식당은 어린이로부터 95세 어르

신까지 가족단위 단골들이 많아요.”

조미료 대신 된장과 간장을 쓰고, 육수를 낼 때는 야채 위주로 깔끔하게 준비한다. 갈비탕 육수를 낼 때는 오랜 시간 동안 서서 기름기를 제거한다. 대표메뉴로는 갈비찜, 찜밥 정식, 영양갈비탕이 있으며 점심에는 다양한 재료의 비빔밥을, 저녁메뉴로는 삼겹살이 준비된다.

찜밥정식에는 신선한 찜과 해바라기씨, 호박씨, 땅콩 등 견과류가 들어 있는 우렁찜장, 계란찜, 고추장제육볶음과 밀반찬이 제공된다. 갈비찜은 간장소스로 매콤한 맛을 낸 안동 갈비찜으로 부드러운 육질을 자랑한다.

평일 초저녁, 딸과 외손녀와 함께 이른 저녁을 먹던 최은영 씨(56세, 초지동)는 “평소에 지나다니면서 분위기에 이끌려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 네 살짜리 손녀와 함께 갈비찜을 먹으러 왔어요. 맛이 깔끔하고 육질도 부드럽고 자극적이지 않아 손녀 입맛에도 잘 맞네요.”라며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 자주 들르겠다.”고 했다.

“한식조리만 30여 년 했어요. 안산에서 제 이름 석 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아내 김 씨는 “남편의 요리 솜씨는 타고난 것 같아요. 다른 일도 권유해봤는데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서 말리지 못하

고 음식점을 오픈하게 됐어요.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라며 어깨를 으쓱한다.

18평 남짓한 식당에 하루 평균 120명의 손님이 다녀간다고 한다. 일요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 부부는 평소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일요일 하루쯤은 쉬고 여행을 가거나 에너지 충전을 한다고 했다. 고 대표는 “음식은 손맛”이라며 술과 잠은 미각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술을 줄이고 숙면을 취하면서 건강관리를 한다.

고 대표는 “한식도 프랜차이즈 음식처럼 세트메뉴를 만들고, 혼자 식당에서 삼겹살 1인분도 드시고 갈 수 있도록 메뉴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내 가족, 내 부모님께 음식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해야죠.”라고 했다.

카페 같은 하얀 집 앞에서 보라색 ‘우수 맛집’ 간판이 석양을 받아 유난히 돋보인다. 안락하고 감미로운 이색 맛집에서 맛과 멋에 취해보는 색다른 경험을 해 보는 것도 좋겠다.

• 문의 : 어울림 영양돌솥갈비탕 (☎ 031-402-0960)

• 주소 : 단원구 초지로 116 (초지동 726-4)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시민들이 정원만들기 행사 참석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오늘은 나도 조경사... 사랑과 치유의 액자 정원 만들어

안산시 꽃예술연합회, 가족이 행복한 원예시간 마련

삶이 즐거운 부모는 자녀에게 커다란 선물이 아닐 수 없다. 꽃노래를 부르며 화초를 가꾸는 부모의 행복한 모습은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행복감도 느끼게 해주지 않을까.

안산시 꽃예술연합회는 지난 4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안산시민 백 여 명과 함께 집안에 들여놓을 수 있는 작은 액자 정원을 만들었다. 안산시 양성평등 기금과 참가자들의 소정의 회비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식물을 이용해 작은 정원을 만들고 관리법을 배웠다.

친구의 권유로 행사에 참여하게 된 조인순 씨(55세, 상록구 이동)는 꽃을 좋아해 봄이 되면 화원이나 마트 식물 코너에서 화분을 몇 개씩 사곤 했는데, 이날은 직접 식물도 옮겨 심고 디자인해 미니정원을 만들었다. 그는 “마치 내가 거인이 돼서 틀 안에 작은 동산을 조성한 느낌입니다. 참 좋아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합니다.”라고 참가 소감을 전했다. 참가 신청 후 참석이 어려워진 어머니를 대신해 행사에 나온 김형운 군(23세, 본오동)은 “어떻게 어머니 마음에 드는 정원을 만들어서 갖다드리나 고민이 좀 됐었는데, 진행자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시고 식물에 대한 이론교육까지 진행되어서 어렵지 않게 만들게 됐습니다.”라며 감사를 표했다.

꽃예술연합회는 세월호 참사로 슬픔의 시간을 보낸 안산 시민에게 아름다운 꽃과 식물을 통한 치유의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주변의 재활용 용기나 상자를 이용해 옥상이나 베란다 또는 자투리 공간 등 넓지 않은 공간에서도 식물을 심고 가꿀 수 있는 미니 정원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 대화도 늘려주고 가정의 화목도가 가져 오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

이윤자 회장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만든 액자정원은 미적 효과뿐만 아니라 실내습도를 조절하는 가습 효과도 뛰어나다. 집안에 작은 정원을 들여놓고 온 가족이 보고 즐기며 식물이 주는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시민과 함께하는 사람중심 이야기 마당’ 10번째… 사회적 경제의 착한 이야기

민선6기 들어 매달 추진해온 ‘시민과 함께하는 사람중심 이야기 마당’이 사회적 경제의 착한 이야기로 10번째를 맞았다. 지난 4월 29(수) 오후 3시 안산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생활협동조합 관계자 등 사회적 경제 주체들과 시 관계자 80여 명은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대강당에 모여 안산의 사회적 경제 조직현황과 활성화,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듣고, 말하고, 해결점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안산시 관계자는 “우리사회가 선진국을 바라보며, 새로운 개발, 발전을 추구하는 지난 20년 사이에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 100만 개가 사라졌다. 국회의원 시절 사회적 기업 육성법도 만들었지만 양적 성장만 가지곤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새로운 경제를 이루는 다양한 기업들로 안산시가 착한 경제를 이끄는 도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 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홍보, 공공구매를 통한 판로개척 등 사회적 경제를 위한 종합적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왔다. 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네트워크 허브로서 교육을 지원해 주체 양성과 사업화 지원, 구성원 역량강화와 신규모델 발굴, 육성 등 기반 구축

에도 열심이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그 중심에 선 사회적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은 ‘공간·장소’였다.

건물 청소 용역과 농수산물 집하 사업을 하고 있는 한 협동조합은 주말에 공유지를 이용해 채소 등 농산물을 팔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시는 매월 넷째 주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리는 재활용품 베품시장을 예로 들며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다. 시에서는 기업인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지만 사업을 이끄는 이사장이 열정적으로 뛰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내용연수가 다 된 관공서 가전제품을 수거해 이웃과 나누길 원하는 IT재활용 업체 임민순 대표에게 시 관계자는 “집 안에 있는 노트북을 꺼내자.”며, 집집마다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 등을 갖고나와 판매하는 날을 구상해 보라고 제안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정기시



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 사회적기업 관계자들이 경제 활성화 추진방향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장 개설, 물품판매와 일자리 상담까지 병행이 가능하다. 산업지원본부 김창모 본부장은 매월 열리는 월례회의에서 사회적 기업에 관한 교육을 10분씩 진행해 공직사회의 관심을 높이겠다고 했다. 사회적 경제-신뢰와 협동, 연대를 이뤄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그려본다.

백미란 명예기자(whity0218@naver.com)



수업에 참여한 어르신이 구워져 나온 칠보공예작품에 막바지 색을 입히고 있다.

선감동 경로당 어르신들 손에서 태어난 칠보공예작품

‘황금산 프로젝트 - 빛을 그리다’, 지역 재생과 화합 역할 톡톡

지난 4월 22일 선감동 경로당에 지역 어르신들이 구워져 나온 칠보공예작품 막바지 작업을 했다. 칠보공예 원보희 작가와 함께 마을 어르신들이 직접 제작한 칠보공예작품을 경로당 벽에 붙이기 위한 작업이다. 작업이 끝난 다음날인 23일 이 작품들로 벽화 작업을 마쳤다.

박양자 할머니(78세)는 “원래 앉아서 손으로 하는 것을 잘해요. 뜨개질이나 바느질을 잘했는데 이렇게 손으로 하는 칠보공예를 하면서 모일때마다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내가 만든 작품이 경로당 벽에 걸린다고 자식들에게 자랑했어요. 나는 가고 없어도 자식들은 내 그림을 평생 보게 돼서 좋아요.”라며 함박 웃음을 지었다.

원보희 작가는 “이 작업을 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어요. 지역 재생과 화합이 목적이었고 함께 경로당에서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칠보공예를 하게 되었답니다. 힘든 작업이지만 어르신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참 기뻐요.”라며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원보희 작가 ‘빛을 그리다’ 칠보공예는 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센터 공공미술 시범사업 [지역재생+예술], ‘황금산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다. 황금산 프로젝트는

도시 공간에 활력과 상상력을 더하여 예술의 공공성을 확장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주요쟁점으로 부각된 ‘도시재생’ 논의와 구도심 쇠퇴 등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다양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목적을 지닌다.

창작센터 13명(팀) 입주작가들이 참여하는 ‘황금산 프로젝트’는, 이제는 잊혀진 지역성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대부도의 ‘황금산’을 주제로 지역의 이야기를 다시 불러내어 치유하는 다각적 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창조적 재생을 꿈꾸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황금산 프로젝트는 친 자연적 조형설치물인 예술선감프로젝트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지역민과 작가와의 협력 속에 진행되는 아지타트프로젝트로 나뉜다. 먼저 지역의 과거 아픈 역사적 상흔과 연육화되는 과정 속에서 훼손되고 버려진 자연 생태환경을 예술가 9인이 예술적 에너지를 접목하고 소통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된 예술선감 공공설치물이 대부도 해솔길 6코스 일대 갈대밭(경기관광공사 소유지)에 오는 6월까지 제작 설치될 예정이다.

소금꽃 전망대(정기현 작가)를 비롯하여 갈대밭을 가로

지르는 비상의 다리(이대송 작가), 통발 어구를 이용한 통로 형식의 조형설치물 프롬나드(정승원 작가)와 밤에 갈대밭 사이를 비행하는 반딧불 설치물(양구라 작가), 갈대밭 속 쉼터인 배 띄워라(박준식 작가), 예술섬 등대 부엉이(이윤기 작가), 빛이 그린 대부도(최보희 작가), 주변의 맥락적 상황과 연결짓는 천상천하(윤형민 작가) 그리고 대부도 옛길 이야기를 시각화한 조민아 작가와 김선철 선생님의 공동작품 등 다양한 예술적 볼거리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선감마을 주민과 예술가 4인이 함께 만드는 아지타트프로젝트는 지역마을의 이야기, 숨은 문화 등을 찾는 교류와 소통의 과정을 통해 지역 공간이 점차 예술적 감성이 녹아든 창작 문화공간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칠보공예 원보희 작가의 ‘빛을 그리다’ 외 선감마을의 삶의 일대기를 기록한 자우녕 작가의 무지개색 대부도, 홍남기 작가가 참여하는 마을 컬러 리프 색채개선, 마지막으로 김태린 작가 외 4인의 배우와 마을 문기식 할아버지가 만드는 ‘셰익스피어, 선감도에 오다’ 공연이 5월 7일 경기창작센터에서 막이 오른다.

올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의 역사와 삶의 기록, 개인의 추억들이 경기창작센터 입주작가들의 다양한 시선과 결합되어 선감도에서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고, 이를 발판으로 대부도, 더 나아가 경기 서해연안의 섬을 잇는 문화 예술섬, 예코 뮤지엄을 기대해본다.

• 칠보(七寶) : 금속에 여러 가지 유리질 유약과 보조적 유약을 올려 고온 가마에 반복해서 구워내 아름답고 귀한 색상의 보배로운 물건을 만드는 공예기법

• 문의 : 경기창작센터 ☎ 032-890-4820

이선희 명예기자(iamyou70@hanmail.net)



세계 각국의 다양한 예술품들 한자리... 국제경기안산아트페어

“경기도를 대표하는 안산시의 봄 축제로 자리매김”



5월 2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전시실에서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안산국제아트페어(AIAF)가 주최하고, 안산시가 후원하는 ‘제12회 국제경기안산아트페어(이하 국제아트페어)’가 14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다양성의 조화, 우리는 하나’라는 모토로 개최되는 이번 국제아트페어는 세계 각국 200여 명의 작가들이 출품한 3천여 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국제 학술세미나와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있어 미술작품 전시·판매 외에도 온 가족이 함께하는 미술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학생들이 직접 행사 운영에 참여해 아트 딜러의 역할을 배우고, 체험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인 학생아트프로듀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생생한 미술시장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2004년 문화적 혜택이 없던 안산 시민에게 미술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안산의 미술인 10명이 모여 매년 축제를 열어온 결과 국제아트페어는 시민과 함께하는 미술문화 체험의 장으로 성장했다.

올해는 엄정하게 선정된 개인 작가 초대전을 비롯해 안산의 지역특색을

독창적이고 창조적으로 표현한 안산지역작가 특별 초대전, 다양한 국가의 현대미술 작가 작품 초대전 등 국내외 작가 200여 명의 작품을 통해 관람객에게 국내·외 현대미술의 폭넓은 감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안산의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 판매전을 기획해 작품 판매 수익금 전액을 안산시 소외계층

을 위한 문화사업비로 기증한다.

전시는 1,2부로 진행된다. 1부는 5월 2일(토)부터 7일(목)까지, 2부는 9일(토)부터 14(목)일까지이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지난 5월 2일 개막식에서는 경과보고와 시상식, 개막공연과 퍼포먼스를 가졌다. 한양대학교 생활무용예술학과 학생들은 부채춤, 안산시립국악단은 세월호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음악제를 공연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4개 부문으로 학생미술실기대회를 열었고 9일 시상식을 한다.

안산국제아트페어 김명산 대회장은 “아트페어란 그림, 조각, 공예, 설치 등 다양한 미술품을 감상하는 ‘전시’와 작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페어’라는 마켓 개념의 전시를 말한다. 이를 통해 서민들이 유명 미술가의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단원의 도시 안산에서 여는 국제아트페어가 국제거리극축제와 함께 경기도를 대표하는 안산시의 봄 축제로 자리매김해 시민에게 볼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하며 상승작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 : 국제경기안산아트페어 사무국 (☎ 031-485-0488)
신선명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시민의 힘으로 특별한 건축물을 쌓다

안산거리극축제현장에서 완성된 ‘시민의 건축’

내 손으로 직접 건축물을 만든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시민들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지난 4월 28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창작센터에 모인 50여 명의 시민들은 올리비에 그로스테테 총감독의 설명으로 그간 세계 곳곳에서 시민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다.

올리비에 그로스테테 총감독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건축을 한다는 특별한 콘셉트를 가지고 이곳에 오게 되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안산시민의 특별한 건축물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머 어마한 양의 종이상자가 총감독의 지휘 아래 하나하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용인 송담대학교 연기영상과 학생들 30여 명은 수업의 일환으로 프로그램에 참석해 각자 맡은 부분을 작업하고 있었다.

2학년 공미술 학생은 “지금은 내가 만드는 부분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지만 매일 교실에서 수업을 듣다가 야외에서 몸을 쓰는 활동을 하니 즐겁다. 총 6회의 워크숍에 참석해 어떠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쌓아올리는 건축물의 처음과 끝을 함께 경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시민의 건축’은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총 6회의 사전워크숍을 진행해 워크숍에 참여한 시민들이 종이상자를 이용해 구조물의 부분을 크레인과 기계가 없이도 만들어가는 과정을 진행했다. 빠르고 편리한 방식이 아닌 느리고 불편한 작업 방식으로 함께 힘을 모아 세워 올린 이 특별한 건축물은 축제라는 공간에서 새로운 풍경으로 다가선다.

지난 5월 1일 거리극축제현장, 워크숍에서 일부 완성된 건축물이 자리를 옮겨 형태를 만들어간다. 둥근 지붕형태의 상부가 완성되고 그 밑 부분을 만드는 시민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지나가던 시민들도 호기심어린 눈으로 지켜보다 자원봉사자의 권유로 섣뚱 건축물 제작에 참여하는 모습이다. 엄마와 함께 테이블을 붙이던 시화초 6학년 김요중 군은 “무슨 집을 만드는 거라고 해서 엄마와 함께 참여하게 되었어요. 점점 모양이 완성되는 것을 보니 신기하고 재미있어요.”라며 “조금 덩기는 하지만 어떤 모양의 집이 될지 끝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물을 공동으로 창조하는 경험을 통해 즐거움을 공유하고 일상의 공간을 특별하게 만들어 준 ‘시민의 건축’은 축제 기간 중 2개의 건축물을 시민과 함께 완성하고 5월 3일 영원한 것은 없다는 여운을 남기며 건축물에 대한 배웅식을 가졌다.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사진 김진형·김진국 명예기자





수암봉 정상에서 바라 본 안산시 전경.



안산에서 가장 높고, 깊은 역사를 간직한 곳 '수암봉' 이야기

탁 트인 전망과 일출 볼 수 있어



수암봉은 상록구 수암동 일대에 자리 잡고 있는 안산의 주산이다. 정상 부분이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막 비상하려는 듯한 형상을 닮았다고 독수리봉(鷲岩)이라 불렀는데, 조선말기부터 산봉이 수려해서 수암봉(秀岩峯)이라 불리기 시작했다. 북동쪽으로는 안양시, 남동쪽은 군포시, 남서쪽은 안산시, 북서쪽은 시흥시를 관망할 수 있다.

보통 해발고도 300m 이상 되는 경우를 산지라 하는데, 안산지역에서는 수암봉이 398m로 유일하게 여기에 해당된다. 그 외 산지는 구릉지 또는 저산성 산지이다. 보통 산지의 정상은 산이라는 명칭이 붙지만 드물게 봉이라는 지명 접미사가 쓰이는 경우도 있다. 수암봉과 노적봉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수암봉은 전체적으로 바위가 많고 산세가 험하다. 대부분은 얇은 토양층으로 덮여 있고, 정상 부분은 암석이 노출되어 있어 가파른 절벽을 형성하고 있다. 일부 골짜기를 따라서는 암괴류(岩塊流)가 나타난다. 거의 편암(片岩)·편마암

류(片麻岩類)로 구성되어 있고, 계곡지대에는 풍화에 약한 흑운모호상 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암봉은 광주산맥의 말단부에 해당하는 산지로, 마산, 칠보산, 광덕산, 나봉산, 노적봉 등의 저산성 산지가 수암봉을 근원으로 뻗어나갔다. 그래서 안산시는 전체적으로 수암봉에서 시화호로 점차 낮아지는 북고남저(北高南低), 또는 동고서저(東高西低)의 지세가 나타난다. 수암봉은 안산천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안산천이 지장골에서 수암저수지를 만들고 다시 흘러 장하동을 거쳐 시화호로 흘러들어간다.

수암봉의 삼림은 리기다소나무와 잣나무 등 침엽수림이 26%, 당단풍, 상수리나무 등 활엽수림 45%, 혼합림이 29%를 구성하고 있다. 또, 평의비름, 강아지풀, 돌양지꽃 등의 초본류와 달맞이꽃, 개망초 등의 귀화식물도 눈에 띈다. 봄에는 노루귀, 현오새, 중의 무릇, 산자고, 팽이 눈, 평의 바람꽃, 산괴불주머니 등 다양한 야생화도 관찰할 수 있다.

수암봉은 골짜기와 능선이 조화로운 산행코스로 이어져 있어 사계절 많은 등산객들이 찾는 곳이다. 수암봉에 오르는 등산코스는 총 4개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1코스는 1.4km로 명상의 숲과 정수암 약수터 헬기장을 지나며 계단길이 많다. 2코스는 0.8km로 가장 짧지만 중간에 암벽길을 지나며, 3코스는 2.1km로 안산향교터에서 시작해 감시조소와 큰재, 작은재를 지난다. 2.2km의 4코스는 소나무쉼터를 지나는 트레킹코스로 수암봉 등산로 중 가장 길이 평탄한 편이다. 수암봉 정상에 오르면 탁 트인 전망과 일출이 함

께 어우러져 장관을 이뤘. 1월 1일에는 새해 해돋이를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수암봉에 오르면 멀리 인천과 수원까지 볼 수 있을 만큼 속 시원한 전망을 제공한다.

수암봉은 과거 안산의 중심 지역으로 안산읍성 및 관아지가 남아 있다. 경기도 기념물 제127호인 안산읍성은 수암봉에서 서쪽으로 길게 뻗는 전형적인 평산성으로 고려 후기 이후에 축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안으로 침입하던 왜구에 대비해 이곳에 읍성을 축조했다고 보는데, 바로 뒤편의 산이 천험의 산세를 가지고 있어 따로 산성을 축조하지 않아도 피난이 가능했다고 여겨지는 성이다. 이곳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읍성 성립이전에 발생한 읍성으로서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수암봉에는 '수암봉 구덩이에서 태어난 장사'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수암봉을 오른쪽으로 돌아 올라가다 보면 굴이 나오는데, 오랜 옛날 힘이 무척 센 장사가 이 구덩이에서 태어나 호랑이와 힘겨루기를 하며 살았다고 한다. 후에 이 구덩이에서 또 다시 삼성(三姓) 장사가 태어났는데 일본인들이 다시는 장사가 나오지 못하도록 구덩이를 메우고 쇠파를 박아 버렸다는 이야기이다. 현재 수암봉 바위 밑에서는 매년 음력 10월 1일, 마을 사람들이 산고사를 지내고 있다.

· 참고문헌 : 안산시사,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 <econojin@naver.com>



안산에서 가장 높고, 깊은 역사를 간직한 곳 '수암봉'

자연에서 삶을 배우는 숲해설가, 징검다리 선생님



징검다리 선생님 이남숙 씨가 아이들에게 자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생태공부를 하며 눈이 떠진 거 같아요”

풀뿌리 환경센터에서 6년째 숲해설가로 활동하는 ‘징검다리’ 선생님, 이남숙 씨를 만났다. 이남숙 씨는 생태교육 전도사이자, 야생화 박사로 통한다. 간단한 질문만 했는데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이어지는 생태이야기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이른 봄, 딱 열흘정도만 피고 진다는 작은 야생화를 보는 일만큼 세상에 귀한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숲해설가 선생님들은 자연이름을 사용하시죠? 저는 항상 봄에 잎이 나기 시작할 무렵을 좋아해요. 먼 산을 보면 나무마다 색이 다 달라 보이는데, 그걸 봄 단풍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처음 활동 시작할 때는 ‘단풍나무란’ 닉네임을 가졌는데, 작년부터 ‘징검다리’로 바꿨어요. 누군가 자연과 생태 쪽으로 한발 들여놓을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제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태공부를 오래 하시다보면, 동네를 돌아다녀도 특별할 거 같아요. 모르고 볼 때하고 알고 볼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저는 사3동에 사는데, 수변공원이 가까워서 다양한 새들과 식물들을 볼 수 있어요. 지난여름에는 가마우지가 먹이물을 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가마우지떼가 옆으로 쭉 줄을

서서 올라가면서 고기 물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장관이었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쭉 물고기를 몰아 잡수해서 먹어요. 보통 우리는 가마우지가 잠수해서 날개 말리는 것만 가끔 보는데, 특별한 행동을 관찰하면 정말 신기해요. 중앙도서관 생태하천에는 왜가리가 많이 있는데, 지나다보면 갈대 밑에 한참동안 가만히 서 있어요. ‘재는 왜 만 날 저러고 있지’ 했는데, 알고 보니 물고기들은 밑에서 그림자만 보이니까 갈대인 척 하고 서 있었던 거예요. 깃털도 날리고 하니까, 진짜 밑에서 보면 갈대가 흔들리는 느낌이라요. 그래서 마냥 기다리고 있다가 물고기들이 가까이 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먹는 거죠.

수암봉에 자주 올라가신다면요. 수암봉에는 요즘 어떤 식물들이 많나요? 저는 산에 갈 때 주로 야생화를 보러 다니는데, 봄에는 수암봉이 다시 보이기 시작해요. 수암봉 약수터에서 계곡 쪽으로 올라가면서 많이 발견해요. 4월초에 갔을 때는 현호색은 완전히 만발했고, 중의 무릇하고 산자고, 팽이눈, 산괴불주머니, 꿩의 바람꽃이 많이 피어있었어요. 수암봉에서 소나무숲길 쪽으로 내려가니 울피불나무도 제법있더라고요. 워낙 꽃이 일찍 피니까 생각을 못했는데, 그냥 나뭇가지에 먼지 같은 게 붙어있는 느낌이었는데 자세히 가보니 정말 예쁜 꽃이더라고요. 일찍 핀다고해서 울피불이란 이름이 붙었는데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꽃이죠. 봄꽃은 빨리 서둘러 보지 않으면 기다려주지 않아요. 길어야 열흘정도, 딱 그때 가야지 볼 수 있어요. 봄에 수암봉은 완전

히 축제기간이에요. 야생화들은 한껏 치장하고 무대에 올라왔고, 새들은 지금 짹짹 철이라 더 예쁜 소리가 나요. 원래 동고비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요즘에는 자주 들리고 덤불 사이로 날아다니는 오목눈이 소리도 들었어요.

수암봉에서 보셨던 생물 중에서 기억나는 것들 있다면? 수암봉 명상의 숲 쪽으로 올라가 돌멩이를 이렇게 들춰보면 가재가 더러 있어요. 가재는 진짜 맑은 물에만 살아서, 요즘은 가재 보기 힘들거든요. 아마도 농약을 쓰고 하니까, 가재가 그걸 피하려고 수암봉까지 올라온 거 같아요. 또, 최근에는 쇠딱따구리가 열심히 나무 쪼면서 집 만들고 있는 모습도 가까이서 봤어요. 사진을 찍으려고 가까이 갔는데 도망도 가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 많은 생물 이름을 다 외우세요? 집에서 쉬거나 잠날 때 소파에 앉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도감을 뒤적거려요. 굳이 외우지 않았는데 자주 접하니까,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뇌가 기억을 하고 ‘애 뭐 같아’하고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걸 알았지’하고 제가 더 신기할 때도 있죠.

생태공부를 오랫동안 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예전에는 산에 다닐 때는 눈을 떴어도 보이지 않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눈을 뜬 것 같이 환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쪽에 허여멀건한 게 보이는데, 쓰레기겠지 하면서 망설이다 가봤더니 산자고였어요. 그땐 산자고를 도감에서만 봤지 실제로 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몇 발자국인데 참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죠. 봄꽃이 생을 다해 일찍 피었는데, 눈길 한 번 못 받고 사라지는 것보다는 예쁘다는 소리 한번 듣고 지는 건 다르니까요. 하루아침에 느낌이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발 한 발 다가가다 보면 매년 느낌이 달라져요. 작년만 해도 그냥 지나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연에서 삶의 지혜를 얻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연에서 배운다는 말이 점점 더 크게 다가와요. 왜 밥 안먹어도 배부르다고 하잖아요. 올해는 봄에 빨리 움직여서 야생화도 잔뜩 보고 다녔더니, 속이 딱 차 1년을 거뜬하게 보낼 거 같더라고요. 예전에 수업해주셨던 선생님이 봄에는 보여지는 걸 많이 보라고 봄이고, 여름은 열매가 많으니까 많이 먹고, 가을에는 그걸 모아놓고, 겨울에는 겨우겨우 살아간다는 말을 했어요. 그게 딱 차면 철학자가 된대요. 그땐 우스개 소리로 들었는데, 정말 그 계절을 제대로 겪어내면 속이 든든해지고 머릿속이 딱 차지는 느낌이 들 거 같아요.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사람과 생명이 공존하는 숲의 도시, 안산



양지초, '세계 책의 날' 맞아 기념행사 개최

움직이며 말하는 그림자극...어린이들 호응 최고

1학년 아이들이 그림자극 동화 「이상한 나뭇잎」을 관람하고 있다.

양지초등학교는 지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첫째 날에는 1층 현관과 도서관 입구에 원화를 전시해 전 교생이 감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둘째 날은 '(사)어린이도서 연구회 안산동화읽는어른'의 슬라이드와 그림자극 동화를 상영했다.

오전 9시, 1학년 아이들이 시청각실에 웅기종기 모여 앉았다. 아기새처럼 재잘대던 아이들은 시청각실에 불이 꺼지자 일제히 무대로 시선을 모으며 숨을 죽였다. 암막커튼이 드리워진 무대는 미니 극장인 듯, TV화면인 듯 작은 사각 앵글만 남기고 어두워졌다.

슬라이드가 '찰칵' 소리를 내며 책장을 넘기자 「으악, 도

깨비다, 「밥 안 먹는 색시」 이야기가 펼쳐졌다. 커튼 뒤에서 배우들은 그림책 장면에서 속도를 맞춰 옛이야기를 실감나게 들려주었다.

이어 그림자극 동화 「이상한 나뭇잎」이 시작되자 아이들은 움직이는 흑백 화면을 신기한 듯 쳐다본다. 하얀 배경에서 검은 나무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주인공들이 등장했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이마에 붙이면 모습이 보이지 않는 신기한 나뭇잎에 얹힌 옛이야기는 검은 막 뒤에서 열연을 하는 배우의 목소리 덕에 더욱 흥미진진해진다.

이마에 붙였다 떼었다 하면 모습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이상한 나뭇잎 덕에 잘 살게 된 소금장수 이야기를 듣고 욕심쟁이는 이상한 나뭇잎을 찾으려 다닌다.

동화책 읽어주는 교장선생님... 큰 호응

“지루했던 책읽기 시간이 즐거워졌어요”

안산서초등학교는 1~6학년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아침활동 시간 8시 50분부터 9시 5분까지 15분 동안 '책 읽어주는 교장선생님'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책 읽어주는 교장선생님'은 아직 독서습관이 들지 않은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줌으로써 학생들의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평생 책을 가까이하는 아이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시작하게 되었다.

책을 읽어주고 함께 읽는 활동은 교장선생님과 학생이 활발히 상호작용하고 정서를 공유함으로써 친밀감을 증진시키고 올바른 인성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독서에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더욱 신장시키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2학년 학생은 “혼자서 책을 읽을 때는 엄청 지루했는데 교장선생님이 읽어주신 책은 정말 실감이 나고 귀에 쏙쏙 들어 왔어요. 재미있는 동화를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기다려져요.”라고 말했다.

문영희 교장은 “학생들은 책을 통해 많은 경험을 하고,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책 읽는 즐거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지요.”라며 학생들이 즐거운 독서시간을 기대했다.

안산서초등학교는 '책 읽어주는 교장선생님'을 통해 아이들이 책을 가까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올바른 독서 환경 조성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안산서초등학교 ☎ 031-487-4550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들꽃처럼 꽃을 피워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이야기

그룹홈, 대안학교 등 청소년들의 쉼터에서 그들을 만나다



왼쪽부터 이혜원, 김재국, 조은비, 김태윤

(사)들꽃청소년세상 창업아카데미반 학생들이 지난 4월 25일 3시부터 강의실에 모여 로드카페 준비를 위해 생각을 모으고 있다. 실습 삼아 준비한 이번 로드카페 준비를 위해 바자회를 열어 비용을 충당한다고 한다. 바자회 품목 가격을 결정하고 메뉴판을 만들었다. 그리고 로드카페에서 판매할 음료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창업아카데미1기 대표를 맡고 있는 조은비 학생(19세)의 꿈은 제품 디자인을 하는 것이라 한다. 선부고등학교를 다니다 꿈을 정하고, '열린 IT 직업학교' 제품디자인과에 위탁 교육을 받고 있다. 버스와 전철을 환승하며 매일 7시간의 수업을 듣고 있지만 힘들지 않고 즐겁다고 말한다.

조은비 학생은 들꽃청소년세상 그룹홈에서 생활한지 5년이 되었다. 서울에서 살다가 이 곳에 정착할 당시 낯선 안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내 좋은 친구와 선생님을 만나 지금은 참 행복하다고 한다. 활짝 웃는 은비 학생의 모습은 꿈 많은 여느 19세 소녀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춤추는 것도 좋아해 직업으로 삼을까 했지만 이제 춤은 취미로

나뭇잎을 하나씩 골라 이마에 붙일 때마다 욕심쟁이는 “여러분!”하고 관객에게 말을 건다. “내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큰 목소리로 “보여요~”라고 대답한다.

쌀가게에서 욕심쟁이는 '쌀자루'라는 글씨가 쓰인 보파리를 들고 나타났고, 비단가게에서는 색색이 알록달록한 꽃무늬 비단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다.

이날 공연을 한 안산동화읽는어른 정혜령 문화부장은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 오던 회원들이 2007년부터 그림자극을 제작해 도서관과 학교 등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은 배경에 그림을 띄우는 효과도 내고 흑백뿐만 아니라 비단의 무늬처럼 다양한 색도 표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1학년 남다른 학생은 “그림자극 동화는 처음 봤는데 까만 그림자가 움직이며 말을 하니까 무척 신기했고, 마지막에 욕심쟁이가 혼날 때는 통쾌했어요. 많이 먹고 싶어서 머리에도 입이 있는 색시 이야기도 재미있어요.”라며 웃었다.

그 옆에서 정서현 학생은 “늘 놀림을 당하던 도깨비가 위험에 빠진 친구를 구해줘서 멋졌어요. 얼른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싶어요.”라며 발을 동동 굴렀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원화 관련 활동으로 '독서퀴즈와 서평 쓰기', '호박엿 나누기', '아씨방 일곱 동무 인형만들기', '팔죽할멈과 호랑이와 족석사진 찍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3일간의 행사를 마무리했다.

박나영 선생님은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종이로 된 좋은 책의 중요성을 알리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책에 대해 흥미와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할 계획이라며 직접 디자인 된 제품들을 만나게 되리라는 꿈을 꾸고 있다. 조은비 학생은 열린들꽃청소년세상에서 창업아카데미반과 인턴십 과정을 듣고 있다. 주말에는 들꽃청소년세상 1층에 위치한 '피네(Fine)'라는 카페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다.

들꽃청소년세상은 현재 15명의 대안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다.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아야 하지만, 공부도 하고 밴드활동, 노래방 등 CA활동도 하고 있다. 또 한 8가정의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다. 가정마다 5~7명이 생활하는데 복지사 2명이 부모님 역할을 하며 같이 생활한다. 식사, 공부, 잠자리 등 모든 생활을 함께한다. 그리고 한신 쉼터를 안산시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그룹홈과 한신쉼터에서 약 60여 명의 학생이 생활하고 있다.

김훈 사무국장은 “우리 청소년들 누구나 간직해온 꿈이 있을 것이다. 환경의 제약이나 어떤 계기로 꿈을 잊거나 포기하게 되는데 그 꿈을 찾아주고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이룬 꿈을 세상에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들꽃은 온실에서 피는 꽃이 아니다.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아름다움과 향기를 드러낸다. 우리 청소년들이 들꽃처럼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꿈을 펼치고 꽃을 피우기 바라는 마음에서 들꽃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래서 지금은 들꽃청소년세상이 되었다고 한다.

만나는 학생들마다 밝고 활기찬 모습이다. 들꽃처럼 비바람을 이기고 강인한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청소년들이 되기를 바라본다.

• 문의 : 들꽃청소년세상 ☎ 031-486-8836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우리 지역의 동아리

대부 해솔길을 사랑하고 사진에 담는 사람들 ‘해솔사모’



대부 해솔길을 사랑하고 사진에 담는 사람들 ‘해솔사모’

바다 해(海), 소나무 숲(率). 대부 해솔길은 안산 9경중 하나이다. 방아머리공원(선착장)에서 시작해 구봉도, 대부남동, 선감도, 탄도항을 거쳐 대송단지로 연결되어 있고 대부해안길 옆 소나무 길을 따라 걷는 산책로는 총 74km의 7개 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갯바위 절벽에 자리 잡은 소나무들은 바다의 푸르름을 두른채 고고한 자태를 뽐내며 늘어선고 많은 야생화들도 저마다의 품위를 간직하고 관광객들에게 매력을 뽐내고 있다.

사진 동아리 ‘해솔사모(해솔길을 사랑하고 사진에 담는 사람들)’는 대부도 해솔길의 사계절 변화를 사진에 담는 동아리다. 대부해솔길의 아름다운 절경을 눈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렌즈에 담아 안산지역을 알리는 민간 홍보사절단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는 2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진을 좋아하는 시민 누구나 동아리회원이 될 수 있다. 해솔사모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변화하는 대부해솔길과 호흡하고, 알려지

지 않은 구석구석을 소개하면서 사람들과의 교감을 나누고자 애쓰고 있다. 회원들은 월 1회의 정기적인 어울림을 통해서 사진 기술 공유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해솔길 사진 전시회를 열어 지역 관광 알리미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해솔사모 동호회 이상신 대표는 “대부 해솔길의 아름다운 매력과 감동을 전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해솔사모 회원들은 봉사정신을 기본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눔을 실천하며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며 해솔사모의 색깔을 분명히 한다.

올해의 계획으로는 대부 해솔길을 안내해주는 리본을 많이 달아줌으로써 해솔길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길 안내를 도와주고 사진 자원봉사 단체 ‘만원의 행복’에서 추진하는 가족사진 찍어주기 행사에 봉사자로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로 세번째 전시회를 준비하는 해솔사모의 건강한 동아리 모습을 기대해본다.

김선 명예기자 <itsumo9011@naver.com>

‘드리러 왔는데 오히려 반아가죠’

말기암 환자 보살피는 호스피스 봉사자, 권오순 씨



권오순 씨(54세)는 현재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12층 암 병동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주1회 정해진 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암 병동 환자들을 대상으로 족욕, 발마사지, 이미용 봉사 등을 하는 호스피스 봉사자는 40여 명. 최고령자는 82세 어르신부터 지난해 신규 봉사자로 활동을 시

작한 43세 직장인까지 대부분이 직장생활을 하는 틈틈이 쉬는 요일에 봉사를 하고 있다.

“44살에 시작한 호스피스 봉사활동이 벌써 10년이 되었다. 처음엔 내가 고통 받는 분들에게 무엇인가를 베풀고 도와드릴게 있을 거라 생각해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내가 인생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면서 몸과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담담히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까를 늘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세월호 참사 현장인 팽목항 시신 검안소 앞에서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기도 했다. 함께 동행한 남편도 묵묵히 도와주면서 평소 아내가 하는 호스피스 봉사에 대해 한 번 더 경험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10여 년 전부터 엄마의 활동을 지켜본 자녀들의 반응은

어떨까? 권오순 씨는 “아이들이 엄마가 하는 일에 대해 굉장히 자랑스러워한다. 지인들도 좋은 일한다며 힘내라고 밥을 사주며 격려해준다.”고 말했다.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만난 환자는 47세의 남성이었다. 그는 가족에게도 차마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마음에 위안을 얻던 환자라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대부분의 암환자들은 처음엔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 많이 힘들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남은 생을 차분히 정리하고자 한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가족보다 더 자주 보는 호스피스 봉사자들에게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불안함, 가족들에 대한 서운함 등을 털어놓기도 한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암병동에서는 암환자를 위해 주1회 교육을 실시한다. 암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통증관리, 간호, 식이요법 등을 통해 암환자가 자신의 병에 대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권오순 씨는 “암환자들이 편안하게 생을 정리하고 마감할 수 있도록 가족들의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서로가 노력해 서운함이 남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는 내년에 신규 호스피스 봉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 호스피스 :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연명의술 대신 평안한 임종을 맞도록 위안과 안락을 최대한 베푸는 봉사활동**

김은미 명예기자 <ami34@hanmail.net>

칭찬합니다

‘평생드림 행복동행’ 김진숙 씨

3대가 행복한 마을을 꿈꾸다!

청소년·어르신 상담을 통한 자원봉사 펼쳐



평생드림 행복동행 팀원들 (아래 우측 첫번째 김진숙 씨)

지난 4월 23일 ‘사랑의 밥차’가 운영되는 안산글로벌 별다문화센터에서 식사 전 어르신 상담을 하고 있는 김진숙 씨. 매주 목요일이면 빠지지 않고 이곳을 찾아 ‘평생드림 행복동행’ 팀원들과 같이 상담과 급식 봉사를 하고 있다.

2011년도에 결성된 ‘평생드림 행복동행’은 분과별로 미용, 웃음치료, 미술, 상담 등 여러 가지를 함께 한다. 평생드림 단체는 사회복지 일을 하면서 각각 타 분야에서 전문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 좋은 일을 해보자는 취지로 꾸려졌다. 처음에 12명으로 시작해 지금은 1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처음 멤버들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평생드림 행복동행’은 ‘3대가 행복한 마을을 꿈꾸다’를 모토로 지역사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조손 가정의 어려움을 알게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어르신을 만나러 다니며 복지 혜택을 받도록 연결해 주고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김진숙 씨는 이에 앞서 2001년부터 청소년 상담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와 갈등을 겪기 마련이다. 김진숙 씨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그래서 더욱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담을 하게 되었고 그런 활동을 통해 갈등을 겪는 자녀와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게 되었다. 힘든 과정 속에서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는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용기를 주는 아들이 있어 힘이 난다고 한다.

지난 봉사활동을 돌아보며 기억에 남는 사례를 들려준다. 김진숙 씨는 “가장으로서 실직한 상태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봉사를 꾸준히 해오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아내와 소통이 안된다가에 상담해드리면서 일 자리를 찾아드릴 수 있었다. 첫 월급을 받고 감사하며 전화를 주셨을 때 참 뿌듯했다. 일자리를 찾게 됨으로 부부 사이도 좋아졌는데 아쉬운 것은 봉사를 나갈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일주일에 한 번 자원봉사를 통해 삶의 활력을 찾았고 일자리도 찾는 적극적인 자신을 발견해서 참 좋았다며 부부가 함께 상담을 받을 수 있냐고 연락을 주셔서 보람되었다.”고 말했다.

돈을 받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찾아다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하지만 이 일도 결코 만만치만은 않았다. 도대체 이런 일을 왜 하는 거야, 무슨 의미를 두고 하느냐 등 흠대를 많이 받았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봉사활동도 가능하다고 김진숙 씨는 말한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부모가 똑바로 서 있으면 자녀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한다. 처음에 꿈꾸고 지금도 꿈꾸고 있는 3대가 행복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요즘 3대가 같이 사는 가정은 드물다. 3대가 같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봉사할 날을 꿈꾸고 있다고 한다.

이선희 명예기자 <iamyu70@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안산시, ‘숲의 도시 안산’ 비전 선포식 개최

“세계기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녹지 확보”

안산시가 지난 27일 ‘숲의 도시’ 비전 선포식을 열고 푸른 도시 만들기에 나섰다.

시는 단원구 고잔동 810번지 일원에 ‘도시 숲’을 조성하고, 안산시·안산시의회 관계자, 국립수목원장, 환경단체, 유아 등 시민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선포식을 가졌다.

이 지역은 왕복 8차선 중심에 위치한 교통섬으로 시가 도시 숲 시범지역을 만들기 위해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최근 도시 숲으로 조성(16,530㎡)했다.

도시 숲 시범지역에는 아파트 재건축으로 재건축 공사로 잘려나갈 뻔한 나무 200그루를 옮겨와 심어놓았다.

이날 선포식에서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국립수목원과 ‘도시 숲’ 조성을 위한 생물종 다양성 지원과 자문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국립수목원의 다양한 도시 숲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기술검토와 자문을 받게 된다. 특히 세월호 집중 피해지역(고잔동, 와동) 내에 치유 숲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수풀위에(자연과 하나 되어 사랑이 샘솟는 숲의 도시)’라는 브랜드를 내세워 선포식을 진행함으로써 앞으로 시 마케팅 활동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유미 국립수목원장은 “숲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다보면 머지않은 미래에는 전국이

아닌 세계가 안산을 생각하는 일만으로도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가장 존귀한 도시로 변해 갈 것”이라며 “여러 형태의 초록빛 산업일자리로 반영되어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15년 동안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1인당 숲 면적 9㎡보다 넓은 15㎡를 확보하겠다.”며 “도심 자투리땅 500여 곳에 쌈지공원과 녹색 쉼터를 만들어 새와 벌, 나비가 돌아오는 숲의 도시 안산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안산시의 도시 숲은 획일화된 인공림이 아니라 우리나라 향토 수종(적송, 층층나무, 산딸나무, 느티나무, 목백합, 이팝나무 등)과 야생화를 심어 새와 곤충이 찾아오는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생명의 숲으로 조성하겠다는 개념이다.

아스팔트를 걷어낸 콘크리트 부산물로 만든 조형물은 숲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문’을 상징한다. 화관을 쓴 어린이들과 주요 인사들은 삭막한 도시산물인 콘크리트 철근 위에 펼쳐진 흙 위에 풀꽃과 꽃씨를 심으며 자연과 생명이 공존하는 숲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유하람 어린이(7세, 은송어린이집)는 “오늘 심은 꽃씨가 비와 햇빛을 받으며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자주 와서 내 꽃이 잘 자라는지 살펴볼래요.”라고 했다.

상록자전거 동호회 이순덕 회장은 “삭막하고 우울한 도시 안산이 숲을 조성하겠다는 반가워요. 시작했으니 절반은 한 셈이고, 이제 시민 모두가 숲의 도시 안산에서 힐링을 하고 활력을 찾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라며 도시 숲 조성을 반겼다.

어린이집·유치원의 유아 40여 명과 동호회 회원을 비롯한 시민들은 ‘치유의 숲’, ‘공동체의 숲’, ‘해안휴양의 숲’, ‘자연공존의 숲’이라는 작은 둔덕에서 참나리, 평의비름, 산부추, 해국, 초롱꽃 등을 심으며 ‘수풀위에’를 향해 분주히 손을 놀렸다.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착한밴드 '이든'이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어렵지만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청소년 국악교육 '얼씨구! 국악 따라~ 흥따라~'



화정초교 6학년 한현정 양이 해금을 연주하고 있다. (가운데 학생)

지난 4월 28일 선부동 평화의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안산 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국악교육 ‘얼씨구! 국악 따라~ 흥따라~’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참가한 8명의 아이들은 안산시립국악단 소속 강사의 진

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음을 짚어내기가 어렵다.

화정초 6학년 한현정 양은 “해금이라는 악기는 교과서에 서만 봤는데 실제로 만져보니 신기하고 재미있지만 안줄(중현)을 잡고 소리를 제대로 내는 게 힘들다.”며, “지금은 ‘학교

행으로 해금을 연주하고 있다. 게이를 부르며 단체로 ‘학교종’을 연주하는 솜씨가 4번의 수업 결과라하기에 제법 훌륭했다.

이어 한 명씩 연주를 해보이면 강사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주는 일대일 맞춤형 수업이 실시되고, 아이들은 각자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화정초 4학년 이은서 양은 “처음엔 짜익~하는 이상한 소리만 들렸는데 지금은 계명대로 하나씩 멜로디가 나와서 재미있다.”고 말했다.

해금은 유현이라고 부르는 가는 줄과 중현이라 부르는 굵은 줄의 어디를 움직여느냐에 따라 음정이 달

종을 배우고 있지만 열심히 연습해서 나중에 ‘에텔바이스’를 멋있게 연주하고 싶다.”고 말했다.

평화의지역아동센터에서 국악수업을 받는 아이들은 다문화가정 자녀 2명과 내국인 자녀 6명으로 초등학교 2학년 부터 6학년 여학생들로 구성되어있다.

‘얼씨구! 국악 따라~ 흥따라~’는 다문화지구 내 청소년과 고려인 청년들에게 국악기에 대한 교육 기회 제공 및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경기도가 주관해 지난 3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현재 원곡초등학교를 비롯한 초등학교 5개소, 평화의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아동센터 3개소, 고려인 대상 1개소에서 해금과 가야금, 아쟁, 피리, 소금, 대금, 사물놀이와 난타 수업을 개설해 전액 무료로 진행 중이다.

총 133명의 국악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은 총 20회의 수업을 마친 후 8월 경 최종 발표회를 할 예정이다. 자신을 나타내는 이름 앞에 붙는 다문화 또는 고려인이라는 거주장스러운 표를 떼어버리고 자유롭게 소통하는데 ‘음악만큼 훌륭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은 없다고 관계자는 전한다.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광복 70주년 중국동포 5.1절 맞이 다문화축제’ 개최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광복 70주년 중국동포 5.1절 맞이 다문화축제’ 개최

지난 4월 26일 원곡동 다문화거리 만남의 광장은 ‘광복 70주년 중국동포 5.1절 맞이 다문화축제’를 즐기러 나온 중국동포와 많은 시민들로 가득 찼다.

식전행사로 중국동포들이 한국가요와 중국노래를 불러 흥을 돋우고 난타공연으로 열기를 더했다. 행사에 참석한 동포들은 흥에 겨워 어깨춤을 추는 등 축제 분위기에 젖어들었다. 이어 2시 개막식을 선언한 후 1부 행사에서는 참석

한 내빈의 축사와 중국동포사회를 위해 헌신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시상식이 이어졌다.

본격적인 2부 행사는 필리핀 여성들로 구성된 무용단의 화려한 춤과 백두산 가무단 가수들의 노래, 한국 전통무용, 경로당 어르신들의 라인댄스, 접시춤, 꽃춤, 성대모사, 노래자랑 등 축제에 걸 맞는 흥겨운 시간이 이어졌다.

친구와 함께 축제를 즐기고 있던 이청숙 씨(58세, 원곡동)

는 “3년 전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몸이 아파 일을 많이 못해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좋다.”고 한다. 남편은 멀리 지방에서 일을 하느라 1년에 3번 정도밖에 보지 못하고 아들도 지방에 있지만 그래도 이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고 말한다.

축제장 한편에서는 중국동포 어르신들을 위해 어묵과 중국만두를 나눠주기 위해 안산시자원봉사센터 회원들이 수고하고 있었다. 내 나라에 살면서도 편견과 배타적인 시선 때문에 힘들었다는 많은 동포들이 이날만큼은 맘껏 웃고 즐기며 하루를 즐겼다.

이길복 재한동포연합경기지사장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열게 된 5.1절 맞이 다문화축제를 통해 자주독립을 위해 애쓴 선조들의 애국정신을 기억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극소수의 중국동포가 저지른 흉악한 사건으로 중국동포에 대한 편견과 싸늘한 시선을 거둘 수 있도록 준법의식을 높이고 범죄를 예방하여 정직하고 질서 있는 동포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표현되는 시간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문화 도시 안산의 명소인 원곡동 만남의 광장은 평소에도 많은 중국동포들이 모여 현란한 발제간을 선보이는 제기차기를 즐기거나 배드민턴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특히 주말에는 많은 외국인 주민들이 모여 송금을 하는 등 은행 업무를 보거나 여가를 즐기기에 모인다.

축제 관계자는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각기 다른 색깔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라며 다문화 축제의 의미를 역설했다.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안산시의회 ‘풀뿌리 갤러리’ 운영 “일상에 아름다움을 담다” 의회-시청 통로 문화 공간 탈바꿈



안산시의회와 안산시 청사를 연결하는 통로가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 해 화제다. 시의회는 매달 새로운 테마로 진행되는 ‘풀뿌리 갤러리’를 의회 청사와 시청 본관의 연결 공간에 마련, 4월 초부터 운영하고 있다.

‘일상에서 만나는 아름다움’을 모토로 운영되는 ‘풀뿌리 갤러리’는 자칫 사무적이기 쉬운 복도라는 공간을 예술 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변모시킴으로써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과 문화·예술을 매개로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달에는 안산스마트허브 기업체 근로자들로 구성된 ‘산업문화재생사업 사진반’ 회원들이 찍은 사진 작품 20여 점이 전시되고 있으며, 내달에는 ‘미량수채화’ 팀의 수채화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6월부터 8월까지의 각각 ‘수미화’와 ‘예소담’, ‘경기미술모두회’ 등 세 팀의 다채롭고 진보적인 화풍을 담은 서양화 작품들이 전시를 기다리고 있다.

성준모 의장은 “‘풀뿌리 갤러리’ 운영은 의회와 시 청사를 찾는 시민들에게 낮은 자세로 다가겠다는 안산시의회의 노력의 일환”이라며 “예술 작품을 통해 일상에서 여유를 찾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좋은 생각’들이 넘쳐나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한편, 작품 전시를 원하는 단체나 개인은 의회사무국(☎ 031-481-2547)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안산시의회



안산시의회 성준모 의장(사진 왼쪽에서 다섯번째)이 17일 갈매체육관에서 열린 ‘함께 걸음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안산시의회 성준모 의장, 소통 행보 강화

안산시의회 성준모 의장이 지역 사회 각계와 교류하며 낮은 자세로 임하는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주목된다.

성준모 의장은 지난 17일 오전 안산 상록경찰서에서 열린 ‘2015년 상록 녹색어머니회 발대식’에 참석해 학생 교통안전지도에 힘쓰고 있는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에게 감사와 뜻을 전하고 유공 회원에 대해 표창했다.

성준모 의장은 과거 녹색어머니회에서 청일점으로 봉사활동을 펼쳤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회원들의 봉사 정신이 안전 사회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성준모 의장은 갈매체육관에서 개최된 ‘함께 걸음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 보호시설 확충을 위한 각계의 중지를 모으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으며, 행사 뒤에는 참석한 장애우들의 손을 맞잡으며 격려

했다.

이날 오후에도 고잔동 A웨딩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가 한국 시민사회·자원봉사에 던지는 질문과 성찰’ 토론회를 찾은 성준모 의장은 참석자들과 환담한 후, 환영사에서 안산 지역 사회가 세월호 참사라는 시련을 겪고도 아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곁에서 묵묵히 봉사에 나섰던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하루 동안 학부모와 장애인, 자원봉사자 등 지역 사회 각계 시민들을 두루 만나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인 성준모 의장은 “안산시의회를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늘 낮은 자세로 시민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할 것이며, 복지 사각 지대 해소를 비롯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안산시의회

독/자/투/고

5월, 어버이 날이 있는 ‘가정의 달’을 기다리며...

많지 않은 액수, 그러나 마음을 담아 전해 드리는 그것. 이미 오래전부터 드렸어야 하는데 그조차도 얼마 되지 않아 더욱 죄송스러운 것. 친정 엄마에게 드리는 용돈을 생각하면 항상 죄스럽다.

이미 오빠나 남동생은 오래전부터 드렸지만 딸이라는 이유로 심적으로 약간 멀리 있다는 생각에서였는지 선뜻 드리지 못했던 것인데 최근에야 늦었지만 적게라도 드려야 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원래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자동이체를 해 드렸다. 그럼 돈 보내는 일을 까먹을 리도 없고, 일일이 은행에 가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을 듯해서였다. 그러나 얼마 후 곧 자동이체 방식을 바꿨다. 내가 직접 은행에 가서 매번 입금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동이체를 하면 기계적으로 돈만 드리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다. 직접 돈을 넣으러 가면 그때마다 엄마에게 전화 한통화 더 해 보고, 안부도 묻고 시시콜콜 엄마와 딸 간에 사는 이야기로 해보는 정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고 나서 용돈을 보내고 돌아서면 가슴 한구석이 찡해 온다. ‘용돈만으로 내가 할 도리를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자책감 때문이다. 얼굴이라도 한번 더 자주 뵙고, 손도 한번 잡아 보고, 밝은 낮으로 맛있는 음식이라도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경상북도 경산에 사는 한 친지가 살고 있다. 지난 겨울



에 볼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인사도 하고 얼굴도 한번 뵙고 왔었다. 친지 집에 들렀을 때는 큰 아들이 와 있었다. 물론 우리와도 가까이 알고 지내는 터였다. 마침 점심시간이어서 우리가 식사 대접해 드리겠다고 하자 근처에 순대국 맛있게 하는 집이 있다며 거길 가자고 하셨다. 친지 할머니께서는 연분홍색 점바를 입고 나오셨다. 승용차에 우리 부부와 친지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그리고 그댕 큰 아들 이렇게 5명이 타고 나셨다.

식당에 도착해 맛있는 순대국 식사를 하던 중 친지 할

머니께서는 큰 아들더러 당신이 입고 있는 점바가 너무나 파스해서 좋다며 연신 함박웃음을 지어 보이셨다.

아들은 노 부모님이 이 순대국밥을 참 좋아하셔서 자주 들르는 곳이라며 어떤 때는 순대국 육수를 사 가지고 가서 두고두고 드시도록 하고, 순대만 사다가 따뜻이 데워 드리기도 한다고 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고 본받을 만한 존경스러운 아들이었다.

할머니는 이야기 도중에 아들이 사준 바로 그 연분홍 점바를 연신 바라보고 손으로 어루만지며 행복한 웃음을 지어 보이셨다.

도시 사람들에게는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보통의 점바 하나, 그리고 5천 원만 들고 가면 식당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는 순대국 한 그릇이지만 이 할머니와 아들은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그토록 행복한 대화와 서로를 위하고 감사며 감사해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정한 효도라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가정의 달 5월, 어버이날이 다가온다. 안산시민 모든 가족들은 효도와 가족사랑과 웃음꽃 만발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길 소망해 본다.

김윤남(안산시 상록구)

생활 속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채택 시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무료 구독신청 031-481-2042, E-mail : bravo@iansan.net

인산의 자릿상

<유리섬 박물관>

글·그림 이영호(kaljebi05@naver.com)



유리섬박물관은 다양한 유리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유리박물관과



유리공예 시연장.



유리공예 체험장



또, 자연과 함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야외조각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왔다. 여기가 유리섬박물관이야.



아~

저 유리 조형물을 보니 바로 알겠어요~



이곳은 대부도에 위치해 있어 대부도 나들이때 반드시 들러야 할 명소가 되고 있다.



헤헷~ 체험장에서 제가 직접 만든 아빠 초상화 접시 어때요?



음... 근데 아빠가 정말 그렇게 생겼어?

- 위치 : 안산시 단원구 부흥로 254 (대부남동) • 문의 : 032.885.6262
- 입장료 : 성인 10,000원, 청소년 9,000원, 소인 8,000원, 유아(3세 미만) 무료
- 체험료 : 15,000원 부터

분묘 개장(화장)시 화장장려금 지원

묘지 개장(이장)시
화장장려금 지원

- 신청대상**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 신고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관계에 있던 자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의 직계비속, 부모와의 직계존속)
※ 2014. 10. 1 이후 개장유골 화장비용
- 지급비용**

개장유골 1구당 20만원
- 신청기한**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
- 구비서류**

① 개장신고 증명서 (묘지소재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발급)
※ 구비서류 : 묘지 사진, 신분증
② 화장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통장사본(신고자) 각1부
- 서류접수**

동 주민센터 및 시청 식품위생과(공중위생담당)
- 지급방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
- 문의**

식품위생과 공중위생담당 ☎ 481-2868, 2834, 2836

우편번호가 2015년 8월 1일부터 바뀝니다.

6자리 → 5자리

110-110 → 03187

단원어린이도서관 5월 주말 영화상영

“가족과 함께 영화 관람으로 즐겁고 유익한 주말 오후시간 보내세요”

〈 주말영화상영 프로그램 〉

	도서관 데이 행사		
5월 9일 (토)	5월 16일 (토)	5월 23일 (토)	5월 30일 (토)

안산시 관산도서관(단원어린이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이용객들이 즐겁고 유익한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단원어린이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어린이들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관산도서관 홈페이지(<http://lib.iansan.net>) 문화행사 및 공지사항을 통하여 연중 매달 주말 영화상영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단원어린이도서관(☎481-38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지원 무료교육

2015 **SNS활용**역량강화교육 05.13(수) ~ 06.26(금)

교육개요

- 모집정원 : 회차당 30명(선착순 교육생 우선등록)
- 교육대상 : 안산시민, 학생,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중소기업 홍보담당자
- 일 정 : 총 3일 12시간(1일 4시간) 14:00~18:00

[초급과정]

구 분	교 육 일 정
1회차	5/13(수) ~ 15(금)
2회차	5/27(수) ~ 29(금)

[중급과정]

구 분	교 육 일 정
3회차	6/10(수) ~ 12(금)
4회차	6/24(수) ~ 26(금)

교육장소

안산시평생학습관(전산교육장)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24-1(사동)



SNS 초짜탈출

- 1일차
 - SNS의 이해
 - SNS 소개 및 개념이해
 - SNS 전략적으로 활용하자!!
- 2일차
 - 파워 소셜유저가 되려면??
 - 파워소셜유저의 개념
 - 온라인 소통전략의 중요성
 - 의사결정자로서의 파워소셜유저 및 사업전략
- 3일차
 - 소셜스토리텔링
 - 스토리텔링 기승전결
 - 소셜미디어에서의 스토리텔링을 활용해보자!!
 - 전략적인 SNS 글쓰기(제목 및 키워드설정 중요성)

나만의 SNS 운영전략

- 1일차
 - SNS활용 고객관리 및 홍보의 필요성
 - 소셜미디어 개념 및 특성
 - 고객관리와 홍보의 이해
 - 매출증대에 있어 인맥관리의 중요성
 - 신규고객 창출 VS 기존고객관리
- 2일차
 - 소셜미디어 및 SNS의 이해와 전략적 활용법
 - 소셜미디어 활용 홍보마케팅의 중요성
 - SNS와 소셜미디어의 차이점
 - 트위터/페이스북, 블로그/카카오톡의 기본 기능 및 특징
 - 소상공인의 전략적 소셜커머스 활용성
- 3일차
 - 자기맞춤형 SNS 운영전략
 - 자기 SNS의 방향성 점검과 토론
 - 자기 맞춤형 SNS 커뮤니케이션 방법론
 - 자기 소셜미디어 운영 가이드라인 구축
 - 바리얼마케팅시 주의점 및 유의점

신청 및 문의

-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홈페이지(www.kasco.or.kr) 수강등록
- e-mail : kasco013@naver.com
- Tel : (070)4279-7705 이미령 실장 / (02)6052-9634 양승미 연구원

상록어린이도서관 5월 주말 영화상영

“가족과 함께 영화 관람으로 즐겁고 유익한 주말 오후시간 보내세요”

〈 주말영화상영 프로그램 〉

			
5월 9일 (토)	5월 16일 (토)	5월 23일 (토)	5월 30일 (토)

안산시 감골도서관(상록어린이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이용객들이 즐겁고 유익한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1층 어울림방**에서 어린이들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상록어린이도서관 홈페이지(<http://lib.iansan.net>) 문화행사 및 공지사항을 통하여 연중 매달 주말 영화상영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록어린이도서관(☎481-37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he poster features a vibrant, multi-colored background with variou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cons such as a robot, a rocket, a satellite, a DNA helix, a microscope, and a globe. The main title is prominently displayed in large, bold, yellow and white Korean characters. Below the title, the dates and times for the festival are listed in a stylized font. The bottom section includes the opening ceremony details and the festival's website.

2015 경기안산 과학축전

과학이 전하는 상상
그 이상의 미래로

5.15 Fri ~ 5.17 Sun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안산사이언스밸리 일원

www.ansansf.kr

주최  경기  안산시
주관  경기테크노파크
후원 한양대학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농어촌연구원, 한국공학한림원

로봇 다빈치 데니스 흥 특별강연
5.16^{Sat} 13:00

전국 지능형 로봇대회
5.15^{Fri} ~ 17^{Sun}

상상을 희망으로 만드는
2015경기안산과학축전 개막식
5.15^{Fri} 14:00

경기안산과학축전 사무국 Tel:031-500-4871, 4872